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지난해 1월 진행된 2025년 연두 주정연설에 주 의회청사에 입장하는 모라 힐리 주지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주지사는 22일 밤 2026년 주정연설에서 전기요금 인하책을 발표한다

보스톤, 주말 북극한파와 함께 최소 12인치 대형 눈폭풍 강타

기상청 25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겨울 눈폭풍 주의보 발령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북극 한파가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이번 주말 매사추세츠등 뉴잉글랜드 남부에 최소 12인치의 대형 눈폭풍이 형성될 가능성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22일 대형 눈폭풍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25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겨울 눈폭풍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스톤 글로브의 기상 칼럼니스트 데이브 엠스타인은 이번 주 후반 매사추세츠를 비롯해 미국 전역으로 다시 내려올 북극 한기가 대형 눈폭풍 형성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무겁고 밀도가 높다. 이 두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되어 비나 눈으로 내려온다. 이번 주말과 같은 북극 한파 상황에서는 눈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12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내달부터 전기료 및 가스요금 대폭 인하

재선 캠페인 나선 주지사 캠페인 핵심은 "생활비 부담 완화(Affordability)"
 가장 추운 2월과 3월에 전주민 전기료 25%, 가스요금 10% 각각 인하

〈전체 기사 읽기〉

월과 3월 두 달 동안 시행된다고 밝혔다.

힐리 주지사는 22일 밤 신년 주정연설(State of the Commonwealth)에서 "향후 총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직접 낮추겠다"고 발표한다. 올해 재선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알린 힐리 주지사는 신년 연설을 이번 캠페인의 상징적인 출발선으로 삼을 >>12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북극한파와 대형 폭설을 앞두고 전기 및 가스 요금 폭증을 우려하고 있다면 그 우려를 조금 덜어도 된다. 주정부는 차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2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최대 25% 인하한다. 모라 힐리 주지사실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금 인하나 에버소스(Eversource),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를 포함한 매사추세츠 주요 5개 유틸리티사 고객에게 적용되며, 2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디지털 신문의 기사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과 지면보기에서 이제는 기사 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PDF면에서 기사 읽기가 불편한 독자들은 해당 기사의 오른쪽 칼럼 위에 **전체기사 읽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바로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의 기사로 연결되어 웹사이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코리아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CE 메인주서 이민단속 작전... 불안 공포 빠르게 확산

포틀랜드와 루이스턴 소말리아 이민자들 대상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매사추세츠 동북부에 위치한 메인주(Maine)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21일 현재 50여명을 체포했다.

메인 퍼블릭에 따르면, ICE의 패트리샤 하이드 부국장은 21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메인주에서 진행 중인 단속 강화 조치로 현재까지 거의 50명을 체포했다” 고 밝혔다. 이는 ICE가 메인주에서 단속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발언이다.

국토부는 성명을 통해 작전명이 ‘오늘의 어획(Operation Catch of the Day)’ 으로 현재 단속이 진행중임을 확인했다. ICE는 이번 단속이 “지역사회를 위협해 온 최악의 범죄 불법체류자들(the worst of the worst)”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화요일 이루어진 일부 체포는 가중폭행, 불법 감금, 아동 복지 위협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이드 부국장은 또 ICE가 메인주에서 약 1,400명을 ‘우선 단속 대

상 명단’ 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추산 기준, 메인주 내 영주권이나 합법적 체류 신분 없는 이민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메인주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은 미네소타의 단속이 한창인 이미 지난주부터 주민들에게 “대규모 단속 가능성” 을 경고해 왔다.

메인주의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와 두 번째 도시 루이스턴에는 상당한 규모의 소말리아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다. 최근 이들 사이 루이스턴과 포틀랜드 광역권을 중심으로 체포 장면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소셜 미디어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지역 사회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두 도시 전반에 걸쳐 공포와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거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낸 이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



말리아인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며 “그들은 지옥에서 왔고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 고 말해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어 그는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을 전격 철회했다.

앞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도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겨냥한 유사한 ICE 작전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미국 시민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대규모 거리 시위로 이어진 바 있다. 메인주 이민자 사회는 당시 사태가 이곳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메인주 지도자들은 주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는 한

편, 헌법상 권리를 분명히 인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메인 이민자 권리 연합(Maine Immigrants' Rights Coalition)은 성명을 통해 “메인은 하나의 큰 작은 마을과 같다” 며 “지역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순식간에 주 전역으로 파급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리플린 차관보는 성명에서 “밀스 주지사와 메인의 ‘성역 도시’ 정치인들은 법을 지키는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보다 범죄 불법체류자 편에 서 있다” 고 주장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장명술 Myong Sool Chang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김유림 Yulim Kim

정한웅 HanWoong Chung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사업국
617-955-9112

재휴업체 연합뉴스 미션협 회원사 세한연 회원사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가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황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929.600.4880 전화주문 서비스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HAPPY NEW YEAR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丙午)년(붉은 말의 해)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관련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MA 4만 5천 아이티 출신 임시보호신분 종료 임박...불확실성 대두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과거 아이티 사회불안으로 미국에 건너와 임시보호신분(TPS)을 받은 아이티 이민자들 상당수가 오는 2월 3일 신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는 4만 5천여명의 아이티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현 국토부가 이들에게 부여해온 TPS를 종료할 경우 이들이 모두 법적신분의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된다. 이들은 취업, 망명신청 가능성, 또는 폭력과 혼란에 빠져있는 아이티로의 추방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다.

지역 사회단체와 경제계 인사들은 TPS 종료가 수많은 가정을 혼란에 빠뜨릴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 요식업, 교통 부문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매터팬의 주빌리 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사연이 쏟아졌다. 간담회에는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그의 경선 상대인 세스 몰턴 하원의원, 어이나나 프레슬리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브록턴에 거주하는 시내버스 운전사 이자 세 자녀의 아버지, 제약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 공항 근무를 하다 현재는

우버 운전을 하는 이민자 등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불안한 미래의 두려움을 공개했다.

임시보호(TPS)신분은 내전, 자연재해, 극심한 사회 불안 등으로 본국 귀환이 위험한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스턴 광역권은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아이티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이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연방법원에 TPS 종료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아이티에 대한 TPS를 여러 차례 연장해 왔다.

행사에서 어이나나 프레슬리 의원은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을 향해 “잔인하고 무능하다” 며 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했고, 이민세관단속국(ICE) 해체까지 주장했다.

마키 상원의원은 TPS 종료 결정이 인종차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ICE는 체포해야 할 범죄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고 말했다. 몰턴 하원의원도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고통과 박해를 낳는 결정” 이라며 아이티 커뮤니티뿐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sb@bostonkorea.com

뉴햄프셔 매리맥 ICE 감금시설 설립 논란... 주민들 반발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민단속국(ICE)이 뉴햄프셔 매리맥(Merrimack) 지역의 대형 창고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스턴 글로브는 19일, 매리맥 50 로버트 밀리건 파크웨이(50 Robert Milligan Parkway)에 위치한 32만 4천 395스퀘어피트 규모의 물류창고가 ICE 수용시설 후보지로 내부 문서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는 이 시설에 최대 5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1월 12일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매리맥 지역구의 로즈마리 링 주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이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본다” 며 “문서의 신빙성도 상당히 높다” 고 밝혔다. 그녀는 이 문서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문의와 항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햄프셔 매리맥 소재 50 로버트 밀리건 파크웨이(50 Robert Milligan Parkway in Merrimack, NH)의 창고 건물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가속화 계획과 맞물려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매리맥은 전국 23곳의 신규 수용시설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실제로 1월 8일 매리맥 타운 의회 회의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몰려와 반대 시위를 벌였고, 최근에는 주민들이 해당 창고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려다 사설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다

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ICE 측은 “전국적으로 구금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 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설들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정식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화된 구금시설이 될 것” 이라고 해명했다.

매리맥 경찰과 타운 당국 역시 연방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AN. 23rd - JAN. 29th, 2026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STEAK HOT POT RICE

Imagine sizzling steak on fluffy rice with fresh, crisp scallions. Every bite is rich, savory, and comforting. Bring it to life at home with H Mart's hearty ingredients. 한 입마다 깊고 든든한 맛의 스테이크 솥밥,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Frozen Durian 냉동 두리안 LB \$2.99	Sharon Fuyu 샤론 단감 2LB/PKG \$4.99 \$14.99 BOX	Shanghai Choy 청경채 LB \$0.99	Korean Pear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9-11 CNT/BOX \$24.99 BOX	Mandarin with Leaf 잎 달린 만다린 4 LB/PKG \$9.99	Organic Korean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한국산 새송이 버섯 PRODUCT OF KOREA 10.58 OZ/PKG \$2.99 USDA ORGANIC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Young Radish/Baby Radish/Baby Napa 총각무/열무/ 풋배추 BUN \$1.99 FOR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EA \$0.99	Cherimoya 체리모야 LB \$7.99	Jumbo Yellow Onion 양파 LB \$0.49	Korean Sweet Potato 고구마 LB \$1.99	Hallabong Mandarin 한라봉 3 LB/BOX \$9.99	Small Bok Choy Tip 스몰 박초이 팁 LB \$1.99	Yellow Dragon Fruit 노란 용과 LB \$3.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Heel Meat 생 소 사태 LB \$9.99	Fresh Boneless Pork Loin Chops 생 뼈없는 등심 폭잡 LB \$5.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1.9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8.99	Frozen Old School Soondae Korean Style Links 아얌육 토종순대 1.5 LB/PKG \$9.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Fluke from Jeju 제주산 활황어 PRODUCT OF KOREA/LB \$21.99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5.99	Frozen Cleaned Salted Yellow Croaker 손질된 자반 참조기 300-400'S/LB \$7.99
Frozen Swai Fillet 스와이 필렛 LB \$2.99	Frozen Small Octopus 주꾸미 5-15'S/LB \$7.99

SMART CARD MEMBER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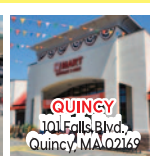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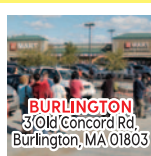
NONGSHIM Neoguri Udon Type Noodles 농심 너구리 MILD SEAFOOD FLAVOR \$5.99 4.23 OZ X 4 EA/PKG	NONGSHIM Budae Ramyun 농심 부대 라면 SPICY & SMOKY FLAVORS \$5.99 4.23 OZ X 4 EA/PKG
THE HOUSE MANDU Spicy Pork & Vegetable Dumpling 그집만두 매운 왕교자 \$6.99 24 OZ	THE HOUSE MANDU Pork & Vegetable Dumpling 그 집 만두 참만두 \$6.99 1.65 LB

NONGSHIM Shin Black Premium Noodle Soup Cup 농심 신라면 블랙 컵 2\$5 FOR 3.5 OZ	COOKSEE Korean Rice Noodles with Non-spicy Seafood Flavored Soup 국시 멸치맛 쌀국수 \$7.99 1.21 LB (6 EA/PKG)	HAIO Premium Roasted Seaweed Value Pack 해오름 밥도둑 혼합 도시락김 \$5.99 0.15 OZ X 16 EA/PKG	CHUNG JUNGONE Sunchang Doenjang Soy Bean Paste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8.99 6.17 LB	OFOOD Korean Inspired Crispy Battered Chicken 대상 순살치킨 HONEY GARLIC/ SOY SESAME \$4.99 18 OZ
PULMUONE Vietnamese Style Pho Noodle Soup 풀무원 베트남 쌀국수 \$5.99 11.2 OZ	PULMUONE Kimchi Hand-Torn Noodle Soup 풀무원 김치 수제비 \$5.99 16.3 OZ	GLICO Pocky 글리코 포키 CHOCOLATE/ STRAWBERRY 3.81-4.13 OZ (9 EA/PKG) \$2.99	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크래커 \$3.99 12.84 OZ	HAITAI Butter-ring Deep Choco Cookie 해태 버터링 칩초코 \$3.99 5.46 OZ
DR.CHUNG'S FOOD Soy Milk Vegemil Black Bean, Almon & Walnut 정식품 베지밀 검은콩 아몬드 & 호두 두유 6.4 FL OZ X 24 EA/PKG \$12.99	NAMYANG French Cafe Arabica Gold Label Instant Coffee Mix 프렌치 카페 아라비카 골드 라벨 커피 믹스 2.55 LB (100 STICKS/PKG) \$17.99	Acupressure Slippers 일반 지압슬리퍼 M (PINK/RED)/XL (BEIGE/BLUE) \$5.99 \$4.99 PAIR	UNCANNY Hello Kitty Slow Cooker UNCANNY 헬로키티 슬로우 쿠커 \$39.99 \$32.99 2 QT EA	ALLTHEN Wardrobe Dehumidifier 올덴 물먹는 보송 옷걸이형 제습제 \$2.49 \$3.99 \$1.99 7 OZ EA

천년 김치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매사추세츠 집값 200만달러 이상 타운 9곳, 100만달러 이상은 54곳

중저가격의 주택은 소폭 상승, 상위 가격대 주택은 두자릿 수 상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 주에서 지난해 단독주택 중간가격이 200만 달러를 넘긴 타운이 9곳, 100만 달러를 넘긴 지역은 무려 54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이미 미국 내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매사추세츠에서, 2025년 상위 가격대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보스톤비즈니스저널이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워렌 그룹(Warren Group) 집계 기준으로 2025년 매사추세츠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 대비 2.6% 오른 63만8천 달러를 기록했다. 콘도 중간가격은 53만7천 달러로, 전반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다. 연중 가격 정점은 6월로, 중간가격이 68만7천5백 달러까지 오르며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

하지만 평균적인 상승률보다는 에 띄는 것은 고가 주택 시장의 급등이다. 브루클라인(Brookline)의 경우 단독주택 중간가격이 1년 새

15% 상승해 2백68만 달러에 도달했는데, 이는 매사추세츠 전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다만 워렌 그룹이 별도로 집계한 보스톤 시의 특정 지역 묶음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통계는 백베이, 사우스엔드, 비컨힐, 펜웨이, 노스엔드, 파이낸셜 디스트리크 즉 노른자위 지역을 포함하며, 사우스보스톤이나 도체스터, 락스베리 등은 제외돼 있다. 이 기준에서 보스톤의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300만 달러를 소폭 넘겼다.

2025년 기준으로 200만 달러를 넘긴 고가 커뮤니티는 여전히 전통적인 부촌들이 중심이다. 웨스턴(Weston), 웰슬리(Wellesley), 뉴턴(Newton) 등 보스톤 인근의 대표적인 고소득 교외 지역들이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부유한 교외 지역들까지 100만 달러 선을 넘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단독주택 중간

<전체 기사 읽기>

가격이 100만 달러를 돌파한 곳은 알포드(Alford), 박스포드(Boxford), 린필드(Lynnfield), 시추에이트(Scituate), 웬햄(Wenham), 웨스트뉴버리(West Newbury) 등 6곳이다. 노스쇼어에서는 마블헤드와 뉴버리포트가, 사우스쇼어에서는 코하셋과 시추에이트가 ‘백만 달러 커뮤니티’ 대열에 합류했다. 메트로웨스트 지역에서도 합킨턴과 웨이랜드가 같은 흐름을 보였다. 반면 사우스보로는 2024년에 100만 달러를 넘겼다가 2025년에는 다시 내려앉았는데, 이는 거래 건수가 적은 소규모 커뮤니티일수록 통계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레이트 보스톤(보스톤 광역권)의 경제 성장과 함께 휴양지 주택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케이프코드에서는 네 곳의 타운이 단독주택 중간가격 100만 달러를 넘겼으며, 그중에서도 프로빈스타운(Provincetown)은 210만 달러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체텀, 올리언스, 트루로가 뒤를 이었고, 반스터



블 타운에 속한 오스터빌 역시 1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이처럼 중저가보다는 상위 가격대의 주택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은 보스톤 고소득 층이 구조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K자 성장 형태를 띠고 있는 보스톤에서 바이오, AI, 금융, 의료 중심의 고임금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 이들은 금리변화에 덜 민감하기에 고가 주택의 수요가 유지 또는 더 강해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기지 락인(lock-in) 효과로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희소성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다. 특히 보스톤의 상위권 지역은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구역이라는 인식이 강해 이 주택들이 위험자산의 헤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높은 가격 수준 위에서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사추세츠 주택시장은 실수요자에게 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층이 몰리는 지역과 휴양지 중심으로 가격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6년 초 주택시장에도 K(?) 바람이 불고 있다.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들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su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EJ Kim 617.388.7652 ejkim@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91 nikkipark@gmail.com	 피터 주 617.780.7839 thepeterju@gmail.com	 지나 최 978.866.3248 thepeterju@gmail.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921@gmail.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i@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마사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gmail.com	 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52@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메건 리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yu2022@gmail.com	 Lu Jiang 240.449.0117 jiangubox@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mik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빈센트 박 201.446.8595 vincent@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m@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Mimi Belanger 413.237.1586 mimiy111@hotmail.com	



태양광 패널 리스 계약, 집 팔 때 '복병' 된다

리스 태양광, 주택 매매 막는 숨은 비용 구매 방식의 태양광, 세금 혜택 없지만 여전히 매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전기요금의 치솟는 시대, 태양광 패널은 매력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지며, 주택 가치도 5%에서 10%까지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패널을 '구매' 한 것이 아니라 '리스' 하고 있는 경우, 집을 팔 때 큰 문제로 돌아오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는 최근, 태양광 리스 계약이 주택 매매를 어렵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스형 태양광은 통상 20년에서 25년에 이르는 장기 계약이며, 매달 납부해야 하는 리스요금과 해마다 인상되는 요금, 그리고 조기 해지 시 수만 달러에 달하는 매입 비용이 포함돼 있다. 해서 자산이 아니라 부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많은 집 보유자들은 집을 팔 때

구매자가 해당 리스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매자가 주택담보대출과 별도로 장기 채무를 추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콜로라도 덴버 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인 존 불릭은 “집을 팔 때 이 시스템을 상환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집과 리스 두 가지에 대해 모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잠재 구매자가 매수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태양광 리스는 협상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도자가 거래 성사를 위해 계약을 조기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그 비용이 수만 달러에 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야후 파이낸스는 지적했다.

태양광 설치의 지난 20여년간

〈전체 기사 읽기〉

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 높은 전기요금, 세금 혜택,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급격히 확산됐다. 현재 미국 전체 주택의 약 8%가 태양광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와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비율이 훨씬 높다.

테슬라는 2025년 기준, 평균적인 주택용 태양광 시스템 설치 비용을 2만1,900달러에서 2만6,400달러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스방식이 선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커지고, 해마다 요금이 오르면서 절감 효과가 줄어드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2024년 중반 기준, 미국 주거용 태양광 프로젝트의 약 36%가 리스 또는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3년 전 22%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흐름은 세금 제도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2025년 말로 개인이 태양광을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30% 연방 세금 크레딧이 종료된 반면, 리스와 PPA를 제공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업용 세액공제는 유지되면서, 업계가 임대 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텍사스 건 배럴 시티에서 집을 찾던 조시 윌리엄스는, 태양광 패널 잔액이 6만 달러가 넘는 주택을 검토했다. 전기요금은 없었지만, 향후 20년간 매달 291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그는 거래를 포기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2025년 질로우(Zillow) 데이터를 분석한 솔라리

뷰(SolarReviews)에 따르면, 태양광을 소유한 주택은 그렇지 않은 주택보다 평균 6.9%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최근 AI로 인한 전력 소비의 폭증으로 전국적으로도 전기요금은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속도로 오르고 있다.

존 불릭은 “세금 혜택이 사라졌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구매 방식의 태양광은 다시 매력적인 투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JAN. 22ND - JAN. 29TH, 2026

**SWIMMING CRAB
 MARINATED
 IN SOY SAUCE**

**연평도 알배기
 간장게장**

\$18.99



4.4 LB/PKG LIMIT 3

**3 LB MORE!
 15 LB + 3 LB**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마이 쌀

\$11.99

~~Reg. \$17.99~~

LIMIT 2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매사추세츠 상원, '세금 쇼크 완화' 법안 통과... 실제는 우 시장 증세안은 차단 목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상원이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의 상업용 부동산 세금 인상을 부결하고 실제적인 재원 대책 없는 '세금 쇼크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월 16일, 주택 재산세(Property tax)가 한 해 10% 이상 급등할 경우 지방정부가 일부 세금 환급이나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 2899)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해당 시(市)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며,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세제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세금을 깎아주려면, 그만큼 시 예산의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또 다른 세수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스톤을 포함한 대도시들이 실제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가

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날, 상원은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이 추진해 온 상업용 부동산 세금(Comercial Property tax) 인상 계획도 33대 5로 부결했다. 이 안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주거용 재산세 증가분을 상업용 부동산에 더 많이 배분해, 급격한 주택 세금 인상을 완화하자는 내용이었다.

상원 지도부는 기존 주 재산세 분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윌리엄 브라운스 버거 상원의원은 "부유한 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낮추는 대신, 소규모 상업용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이클 러시 상원의원은 "보스톤의 평균 주택 세금은 최근 몇 년 사이 수백 달러씩 급등하고 있으며, 고정 소득에 의존하는 노년층과

<전체 기사 읽기>

중산층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조정이 장기 해법을 마련하기 전까지의 임시 완충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상원 결정이 실질적인 세금 완화보다는, 우 시장의 증세안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지방정부에만 부담을 지우는 구조상, '세금 쇼크 완화' 법안은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하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원은 그동안 우 시장의 안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온 만큼, 이번 상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hsb@bostonkorea.com

미셸 우 측근 보스톤 시 세건 이도우 경제기획 수석 사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시의 핵심 경제 정책을 담당해 온 세건 이도우 경제 기획·포용 수석이 오는 2월 말 사임한다.

보스톤 지역 언론은 19일 일제히 이도우 수석이 가족 사정을 이유로 사퇴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도우 수석은 "내가 자란 도시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며 "지난 몇 년간 돌봐온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2월 말로 역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임으로 이도우 수석은 미셸 우 시장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청을 떠나는 또 한 명의 핵심 관료가 됐다. 앞서 교통·공공 사업을 총괄하던 재사 프랭클린-호지 보스톤시 도로국장도, 1기 행정부에서 비서실장을 맡았던 티파니 추 역시 이미 시청을 떠났다.

이도우는 2021년 보스톤시 경제개발국(현 경제기획·포용국) 수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시청 합류 이전에도 매사추세츠 흑인경제위원회를 이끌며 흑인 커뮤니티의 기업 육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해 온 인물이다. 그는 시청에서의 역할을 "이전 활동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재임 기간 동안 이도우는 우 시장의 주요 경제 정책들을 일선에서 수행했다. 공실 상가에 소상공인을 유치하기 위해 시가 보조금

<전체 기사 읽기>

을 지원한 SPACE 그랜트 프로그램을 총괄했고, 시 정부 계약에서 소수계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관여했다. 또한 지역별 창업 생태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미셸 우 시장은 보스톤글로벌에 보낸 성명에서 "이도우 수석의 리더십 아래 보스톤 지역사회는 더 활기차고 포용적이며 서로 연결된 모습으로 변화했다"며 "팬데믹 이후 보스톤이 다시 일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도우 수석은 지난해 시청 내부 조사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전직 시 공무원 마르와 쿠다이나자르와 출란 황은 가정 분쟁 과정에서 시청 직위를 이용해 체포하려는 경찰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쿠다이나자르는 이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기획·포용국의 매니저였던 쿠다이나자르는 "(자신의 상사였던) 이도우 수석이 외출 중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며 남자 친구인 황에게 알린 이후 해당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도우 측 변호인 제프리 로빈스는 "조사 과정에서 이도우 수석은 면담을 받았으며,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반박한 바 있다.

원데이 무료체험을 해드립니다
연락을 주세요!

기미 / 잡티 / 리프팅 / 탄력 / 미백 / 여드름 / 아토피

Esther TL SGM ICD **781.454.1357**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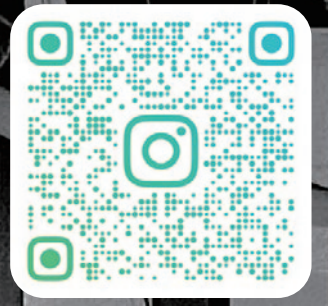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www.premierworkspro.com



매사추세츠 내달부터 전기료 및 가스요금 대폭 인하

▶▶1면에 이어서

전망이다. 이번 전기료 인하의 재원은 '대체 이행 부담금(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 기금에서 충당된다. 이는 전력회사들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재생에너지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해당 자금이 사실상 주민 요금 감면 재원으로 환원되는 구조다. 이는 지난해 봄, 주정부가 주민 전기요금에 일괄 50달러 크레딧을 제공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주정부 지원 외에도 유틸리티 회사 자체 인하 조치도 병행된다. 주요 전력회사들은 2월과 3월 전기요금을 약 10% 추가 인하하고, 가스요금 역시 약 10% 수준의 일시 가격 조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 할인분의 상당액은 이후 비수기 시즌인 5월 이후 수개월에 걸쳐 다시 요금에 분산 반영된다. 겨울철 부담을 낮추는 대신 여름철 기간에 올리는 상쇄 요금 구조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힐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올 겨울 가장 혹독한 두 달 동안 수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최대 25%, 가스

요금은 약 10%까지 낮아질 것"이라며 "단기적인 부담완화 뿐 아니라 장기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더 많은 에너지원 확보, 요금 인상 억제, 불필요한 요금 구조 제거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비용, 의료비, 보험료, 주택 가격, 교통비 등 생활비 전반이 높은 매사추세츠에서 이번 전기요금 감면 조치는 단기적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힐리 주지사의 재선 전략에서도 '생활비 부담 완화'가 핵심 프레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경제정책이자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번 신년 연설은 에너지 비용 완화뿐 아니라 매사추세츠 경제 전반의 부담 완화를 핵심 메시지로 삼는다. 여기에 연방정부와의 정치적 긴장 구도도 연설의 주요 내용이다. 힐리 주지사는 최근 재선 캠페인 영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대립 구도를 전면화한 바 있다.

동시에 힐리 주정부는 지난 임기 동안 무상 급식 확대, 세입자 렌트 수

료 폐지, 세금 감면, 교통정책 개혁, MBTA 구조 개편 등 정책 성과를 강조할 예정이다. 다만 MBTA는 여전히 구조적 재정난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추가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는 약 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레베카 테퍼 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각 가정은 겨울철 엄청난 유틸리티 비용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현실이어서 이번 요금인하를 요구했다"라며 "미국 전국에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매사추세츠는 지속적으로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정책은 지난 건강 보험료 감면에 따른 또다른 생활비 부담완화 정책이다.

주정부는 최근 매사추세츠 경제 성장 둔화를 공식 경고했으며, 지방 정부와 주의회 역시 긴축 재정 국면을 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정부는 다음 주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매사추세츠 에너지 및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스턴지역에 내린 폭설을 스노우블로어로 치우고 있는 모습

주말 북극한파 이후 뉴잉글랜드 대형 눈폭풍 가능성 높아

▶▶1면에 이어서

향후 며칠 동안 북극한파의 영향으로 텍사스에서 북부 플로리다, 그리고 뉴잉글랜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의 기온이 30년 평균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 차갑고 무거운 공기와 남쪽의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 사이 경계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미시시피 밸리에서 오하이오 밸리를 거쳐 중부 대서양 연안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즉 눈폭풍 또는 강우권 지역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저기압의 북쪽과 남쪽 범위다. 이 범위가 뉴잉글랜드까지 치고 올라오면 '본격적인 폭설'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가장 자리에 살짝 걸치는 정도에 그칠지가 결정된다.

중부에 형성되는 저기압대가 대서양 연안으로 빠져나가면서 금요일 밤부터 뉴잉글랜드를 덮칠 북극 한기와 얼마나 치열하게 맞설지도 변수다. 오래 버틸수록 더 많은 눈이 형성된다.

유럽 기상 모델은 눈이 일요일 오후 뉴잉글랜드로 유입돼 월요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GFS 모델은 일요일

일 저녁부터 눈이 시작돼 이른 월요일까지 지속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시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모델 모두 주말 후반 폭설 가능성을 공통적으로 가리킨다.

이번 눈은 기온이 낮아 건설이 될 전망이다. 흔히 "너무 추우면 눈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극심한 한기 이후 약간 완화된 조건에서 눈이 내리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기상 전문가 엡스타인은 "현재로서는 두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하다"며 "아직 수일이 남아 있는 만큼 예보는 계속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말 후반 폭풍 가능성 자체는 분명하다"고 덧붙혔다.

남쪽으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뉴잉글랜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뉴욕에서 워싱턴 DC에 이르는 중부 대서양 지역의 항공·철도 교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국 공항으로 연쇄적인 지연을 불러올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좋은 치과, 좋은 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세계에 부는 클라우드 충격, AI 에이전트부분의 '챗 GPT모멘트'

“클라우드에 빠졌다” ...엔트로픽 AI, 개발자 넘어 일반인까지 사로잡다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클로드 코드(Claude Code)’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계를 허물며, 비전문가들까지 놀라게 하는 새로운 AI 활용시대를 열고 있다.

엔트로픽이 개발한 최신 모델 ‘클로드 오픈스 4.5’는 기존의 코드 생성 AI 수준을 넘어, 사실상 ‘사고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생성형 AI 초기 확산기와 비견되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베르셀 말테 우블 최고기술책임자는 “AI 없이는 1년 걸릴 프로젝트를 1주일 만에 끝냈다”고 밝혔으며, 암호화폐 세금 플랫폼 어웨이큰택스의 앤드루 두카 최고경영자는 “평생 쌓은 기술이 단 한번의 실행으로 대체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클라우드 코드가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사용자 과업과 프로그램에 직접 접근해 자율적으로 작업하는 ‘AI 에이전트’ 형태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경제 데이터 분석, 사진 복구, 웹사이트 제작, 대량 문서 처리 등 다

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엔트로픽은 종종 오픈AI(OpenAI)와 나란히 언급된다.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며 성장 중인 두 AI 스타트업은 서로 다른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픈AI는 글로벌 일반 소비자를 중심으로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반면, 엔트로픽은 기업 고객에 집중하고 있다. 멘로 벤처스(Menlo Ventures)에 따르면 2025년 중반 기준 엔트로픽은 기업용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았다.

최근에는 구글(Google)이 자체 AI 모델과 도구 세트를 앞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엔트로픽의 최신 기술에 쏠려 있다.

시장조사업체 시밀러웹(Similarweb)과 센서타워(Sensor Tower)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클라우드의 전체 웹 이용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데스크톱 기준 일일 순 방문자 수는 전월 대비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12퍼센트 증가했다.

대부분의 챗봇이 웹이나 앱 안에서 머무는 것과 달리, 클라우드 코드는 사용자 파일, 웹 브라우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광범위하게 접근해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전체 기사 읽기>

예측해 온 ‘AI 에이전트’ 시대를 많은 이용자들이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기도 하다.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연방 경제 데이터 분석, 손상된 하드디스크에서 결혼사진 복구, 웹사이트 신규 제작, 대량 이메일 응답, 음식 주문까지 수행하고 있다. 쇼퍼파이(Shopify) 최고경영자 토비아스 뤼트케(Tobias Lütke)는 최근 받은 MRI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전문가 이용이 늘자, 팀은 보다 친숙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갖춘 ‘코워크(Cowork)’라는 변형 버전을 약 10일 만에 개발했다. 물론 이 제품도 클라우드 코드로 만들어졌다.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엔트로픽은 오래전부터 ‘코딩 능력’과 ‘툴링(tooling)’, 즉 AI가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여러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다. UC 버클리 연구진이 운영하는 벤치마크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코딩과 툴링 분야에서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hsb@bostonkorea.com

패트리어츠, 메이 3개 TD 패스... 스트라우드 4개 인터셉트

휴스턴 28-16 제압, 7년 만에 AFC 챔피언십 진출

(팍스보로= 보스톤코리아) 편집

<전체 기사 읽기>

부 = 쿼터백 드레이크 메이의 3개의 터치다운 패스와 수비의 활약으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휴스턴 텍산스를 28-16으로 꺾고 AFC 챔피언십 게임에 진출했다.

데이비스 3세가 인터셉트 2개를 기록했고, 크레이그 우드슨이 인터셉트 1개와 펄버 리커버리를 추가했다. 마커스 존스는 스트라우드의 패스를 가로채 그대로 터치다운으로 연결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승리로 패트리어츠는 2018시즌 이후 7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됐다.

양 팀이 합쳐 기록한 8개의 턴오버는 2015년 NFC 챔피언십 경기 이후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기록이다.

마이클 브레이블 감독의 첫 시즌을 맞은 패트리어츠는 16승 3패를 기록하며, 다음 주 25일 일요일 콜로라도 덴버에서 덴버 브롱코스(15승 3패)와 슈퍼볼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텍산스는 드마코 라이언스 감독 체제에서 3시즌 연속 디비전 1라운드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프랜차이즈 역사상 이라운드 전적도 0승 7패로 늘어났다.

메이는 27 패스 시도 중 16번을 성공시켜 179야드, 3터치다운을 기록했지만, 텍산스의 강력한 패스러시에 인터셉트 1개와 4번의 펄버로 2차례 상대에게 볼을 내주는 불안한 모습도 보였다. 경기 내내 눈과 비가 섞인 악천후 속에서 진행됐고, 메이의 한 차례 펄버는 휴스턴의 첫 터치다운으로 이어졌다.

스트라우드는 47번 중 20개의 패스를 성공시켜 1터치다운을 기록했지만, 모든 인터셉트가 전반에 나왔다. 그는 한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인터셉트 5개 이상과 펄버 5개 이상을 동시에 기록한 첫 선수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메이는 경기 후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건 뉴잉글랜드의 풋볼이다. 이런 환경을 시즌 내내 받아들이고 싶다”며 “수비진이 정말 훌륭한 경기를 했다. 공을 더 잘 지켜야 하지만, 승리하기에 충분한 플레이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4쿼터 초반 21-16으로 앞선 패트리어츠는 케이슨 부티의 한 손다잉 캐치 터치다운으로 점수차를 27-16으로 벌리며 승기를 굳혔다.

뉴잉글랜드 수비에서는 칼튼

휴스턴은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기고도 반격에 실패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어츠는 이번 승리로 프랜차이즈 역사상 16번째 AFC 챔피언십 진출을 기록하게 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트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보스톤코리아 신문,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을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무엇이 청소로봇의 상징 아이로봇을 몰락으로 이끌었나

우연한 행운, 결코 전략의 부재를 구해주지 않는다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

자 = 20년전 MIT에서 군사용 로봇을 개발한 것은 혁신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혁신의 상징, 첨단 가정용 로봇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는 아이로봇(iRobot)의 성공은 단순히 혁신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광고회사의 광고 한편이 가져다 준 행운으로 출발했다.

1990년 출밭해 2002년 룸바를 출시했던 아이로봇사는 2003년 연말 쇼핑 시즌에 창고에서 먼지만 쌓일 정도로 위기를 맞았다. 사내에서는 ‘망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했다고 전해진다.

그때 한 편의 TV 광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코미디언 데이브 사펠이 등장하는 펍시콜라 광고였는데, 룸바와 흡사한 로봇이 그에게 달려들어 바지를 흠쳐 가는 장면이 나왔다.

펍시콜라를 위한 광고는 룸바를 위한 광고로 뒤바뀌었다. 룸바 판매량은 하룻밤 사이 세 배로 뛰었고, 이 기계는 이 행운에 힘입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아이로봇의 가치 전환점은 회사의 전략이 아닌 ‘우연한 소품’, 광고 대행사 BBDO의 TV광고 아이디어였다는 것이다.

행운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초기부터 아이로봇의 사업 전략에는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행운으로 큰 보상을 얻게 된 이 회사는 명확한 제품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명확한 소비자 시장에 관한 로드맵과 제품 포트폴리오의 부재가 문제였다. 말하자면 기술은 보유했지만 회사의 비전이 없이 잘팔리는 제품 하나에 의존한 경영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테슬라의 경우 약간의 허풍이 들어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뚜렷한 비전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 시대 첨단 혁신기업의 아이콘으로 도약한 것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아이로봇의 출발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1990년 아이로봇을 설립한 엔지니어들, 즉 MIT교수 로드니 브룩스와 그의 제자였던 앵글, 헬렌 그라이너는 어떤 종류의 로봇을 만들게 될지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로봇을 만드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다.

이 팀은 ‘벽에 부딪히면 180도 회전한다’, ‘직선으로 이동한다’와 같은 사전 프로그래밍된 행동 집합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저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

(전체 기사 읽기)

이었다. 이를 통해 저렴하면서도 방안을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었다.

브룩스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전형적인 일을 했다”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기술이 있으니 회사를 차리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수익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는 12년이 걸렸다. 첫 성공작은 9·11 테러 이후 세계무역센터 잔해를 수색했던 군사용 로봇 ‘팩봇’이었다.

그러나 아이로봇이 진정한 길을 찾은 것은 1996년 가정용품 회사 SC 존슨과 대형 로봇 바닥 청소기를 공동 개발하면서였다. 1999년 SC 존슨이 이 제품에서 손을 떼었을 때, 엔지니어들은 이미 많은 문제를 해결해 놓은 상태였다.

이후 엔지니어 조 존슨과 폴 샌딘은 훨씬 작은 가정용 로봇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월풀과 지멘스 같은 기업들이 수십 년간 시도해 왔던 개념이었지만, 저가 마이크로칩의 등장으로 현실성이 생겼다.

두 사람은 상사였던 윈스턴 타오에게 3일과 2000달러만 달라고 요청했고 타오는 2주와 1만 달러를 허락했다. 이렇게 ‘더스트버니’라는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다.

더스트버니는 잘 작동했지만, 소비자용 제품으로 완성되기까지는 거의 3년이 걸렸다. 2001년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가 ‘트릴로바이트’라는 유사 제품을 먼저 출시했지만 가격은 1,500달러였다. 반면 아이로봇의 제품, 이제 ‘룸바’로 이름 붙여진 이 기계는 200달러에 불과했다.

룸바는 첫해에 20만 대가 팔렸고, 2004년에는 누적 100만 대를 넘어섰다. 이름 자체가 로봇 청소기의 대명사가 됐다. 핵심 기술은 특허로 보호돼 있었고, 아이로봇은 향후 20년 동안 비전과 새로운 전략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아이로봇 경영진은 엔지니어로 출발, 구성된 조직이었으나 먼저 했던 일은 룸바의 핵심 개발팀 해체였다.

룸바 개발팀 출신들은 아이로봇이 자신들을 더 잘 대우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윈스턴 타오는 “나는 해고됐고, 나머지 모두는 강등됐다”고 회상했다.

기계 엔지니어 엘리엇 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필 매스 같은 팀원들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곧 회



사를 떠났다.

현재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업체 라이트크래프트의 최고경영자인 맥은 “창업자들이 사실상 모든 공을 가져갔고, 우리에게는 재정적으로 특별한 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보상으로 받은 것은 보스턴 교외 어딘가의 평범한 집 다운 페이먼트 정도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팀원들은 그보다도 적은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룸바에 관한 책을 낸 존슨은 “아이로봇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착취하려 한다”고 느끼며 4년 뒤 회사를 떠났다.

다음 핵심 제품의 개발 실패

초기 성공 이후 10년을 허비한 아이로봇은 뒤늦은 2010년 이후 연구개발에 약 14억 달러를 투입했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

룸바는 스스로 먼지통을 비우게 됐고, 장애물을 피하고 집 구조를 지도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달았다. 바닥을 물결레질하는 로봇도 개발해 고급형 룸바에 통합했다.

하지만 빗물받이 낙엽을 치우는 로봇 ‘루지’는 실패작이었고, 수영장 청소 로봇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아이로봇은 2019년 초 유망 분야였던 ‘테라’ 잔디깎이를 공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2020년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대표적인 경영진의 헛발질이었다. 현재는 중국 로봇 청소기 업체들을 포함한 여러 기업이 로봇 잔디깎이를 출시하고 있다.

한 분석업체는 이 시장이 203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필자는 테라 공개 이후 아이로봇이 주식을 구매했다. 기대에 한 때 주가는 100달러를 넘어 가기도 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취소와 더불어 전량 매도했다.

해지펀드의 압박?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 엘리

자베스 워렌을 비롯한 기업 지배구조 비판론자들은, 아이로봇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박에 굴복해 스스로를 해체했다고 지적한다. 레드 마운틴 캐피털 파트너스의 윌렘 메스다르는 군사용 로봇 사업 매각과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요구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었지만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로봇은 또 다른 획기적인 제품 없이 가정용 로봇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고, 사실 이 문제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설거지나 세탁처럼 다른 가사 노동은 너무 복잡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닌 경우 감당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 저렴한 로봇으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닥 청소가 한계였던 것이다.

특허 만료와 경쟁력 우위 부재

아이로봇이 다음 히트작을 찾아 헤매는 사이, 2000년대 초 출원된 룸바 핵심 특허들이 만료되기 시작했다. 중국 경쟁사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아이로봇은 수백 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니드햄 기반의 샹크닌자 같은 경쟁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며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해 왔다.

필 매스는 “10년, 15년 동안 사실상 경쟁자가 없었다”며 “그만큼 앞서 있었는데, 그 우위를 더 잘 지키지 못한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코백스, 로보락 같은 중국 제조사들은 단순 모방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의 제품은 더 저렴하면서도 종종 더 뛰어난 기술을 갖췄다.

예를 들어 룸바는 방안을 이동하는데 전적으로 카메라에 의존했지만, 중국 업체들은 훨씬 정밀한 레이저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iRobot이 레이저 내비게이션을 도입한 것은 불과 지난해의 일이었다.

그때쯤 회사는 이미 심각한 출혈 상태였고, IDC에 따르면 2025년 2분

기 기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다.

아마존과의 인수 협상 실패

아마존 인수는 파산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 당국은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에 힘을 실어준 것은 엘라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과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였다. 이로 인해 시장은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지배하게 됐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아이로봇의 중국 계약 제조사는 생산의 상당 부분을 베트남으로 옮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아이로봇은 이로 인해 2025년에만 2,3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이로봇의 파산 신청서에서 관세를 주요 원인으로 명시돼 있다. 경영진의 비전과 전략 부재가 문제였다고 쓸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지난해 12월, 매출 급감과 막대한 재정 손실 속에서 이 회사는 연방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룸바를 생산해 온 선전 피시아 로보틱스에 남은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아이로봇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브랜드에는 여전히 가치가 있고, 선전 피시아 로보틱스는 ‘룸바’ 이름으로 청소기를 계속 판매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수년간 룸바를 생산해 왔고, 기술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생산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아이로봇을 비롯한 많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에게 미국 파트너를 모방하고 결국 대체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 셈이 됐다.

또 아이로봇은 실패의 교훈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기업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반면 교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턴에 상륙한 새로운 한국 치킨 명소 탄생, 케이복(K-Bok)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보스턴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턴 인근 서머빌(Somerville)에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Korean-style fried chicken) 전문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최근 현지 외식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KBok Korean Fried Chicken'은 한국에서 발전한 독특한 치킨 조리 방식과 양념을 앞세워 지역 미식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바삭함을 극대화한 조리법과 강렬하면서도 균형 잡힌 맛이 특징이다.

이곳의 치킨은 일반적인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과는 결이 다르다. 두 번 튀기는 조리 방식(double-fried)으로 완성된 치킨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구현했

다. 여기에 매콤달콤한 양념과 간장 베이스의 소스가 더해지며, 한국에서 발전한 치킨 문화의 개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KBok Korean Fried Chicken은 단순히 치킨을 파는 공간을 넘어,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치킨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이드 메뉴와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성은 현지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서머빌 유니언스퀘어(Union Square) 일대에 또 하나의 매력적인 미식 공간이 더해졌다.

메뉴는 기본 프라이드 치킨부터 양념 치킨, 간장 베이스 치킨까지 한국에서 익숙한 맛의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불고기 샌드위치(bulgogi sandwich)'

를 더해 치킨 외 식사 메뉴의 폭을 넓혔다. 치킨 중심이지만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구성을 갖췄다.

또한 베지테리안(vegetarian) 고객을 위한 메뉴도 마련했다. 고기 대신 '노타리버섯(oyster mushroom)'을 사용한 오이스터머쉬룸 프라이드 치킨(oyster mushroom fried chicken)과 샌드위치는 바삭한 식감과 깊은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치킨을 먹지 않는 고객도 한국식 프라이드 조리 방식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에서는 '수키스 카페(Suki's Cafe)'도 함께 운영한다. 커피와 티를 비롯해 간단한 베이커리 메뉴를 제공하며, 시나몬 번과 여러 종류의 크로아상도 판매한

다. 치킨 식사뿐 아니라 가벼운 카페 방문에도 어울리는 구성으로, 공간 활용의 폭을 넓혔다.

바삭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부터 베지테리안 샌드위치, 커피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이번 주말, 서머빌에서 새로운 치킨을 맛보고 싶다면 KBok Korean Fried Chicken을 방문해보자.

주소 (Address): 249 Washington St, Somerville, MA 02143

운영시간(Hours): 화요일-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웹사이트(Website): kbokchicken.com

bostonkorean@hotmail.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617.470.1083**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ath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인생의 순방향과 역방향의 삶!!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이다. 같은 길을 걷고 있어도 누군가는 점점 살아나고, 누군가는 점점 소모된다. 왜 그럴까.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은 지금 순방향인가, 역방향인가” 이 질문 앞에 서고자 한다.

인생의 ‘방향’이란 무엇인가.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축복이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속도를 관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방향을 다루신다. 성경은 늘 ‘길’의 언어를 사용한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고 있다.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렬(alignment)’의 문제이다.

‘순방향인생’이란,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 부르심과 삶의 방향이 일치된 상태를 말한다. 순방향인생은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말한다. 순방향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 상황보다 기준이 분명하다. 삶 가운데 잘될 때 교만하지 않는다. 안될 때 무너지지 않는다.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게 된다.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확고함을 볼 수 있다. 순방향 인생은 고난이 있어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또한, 쉽기 가능하다. 쉽기 죄책감이 되지 않는다. 멈춤이 두렵지 않다.

‘역방향인생’이란, 원하던 것을 성취했는데도 공허하다. 다른 이들보다 더 가졌는데도 만족이 없다. 승자가 되었는데도 평안이 없다. 일상 가운데서 멈추면 불안하다. 바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 쉽기 두렵다. 이 모든 것들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 상실의 증상인 것이다. 관계가 소모적이다. 비교, 경쟁, 증명이 삶의 중심

이 된다.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8:36)

방향을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눅 15:17) 탕자의 회복은 재산의 회복이 아니라, 방향의 회복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서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된다.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은 바로 되어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며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다시 방향 설정을 위해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인생에서 실제적인 방향 전환을 위해 삶의 속도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음을 줄여야 한다.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 비교의 소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준으로 세우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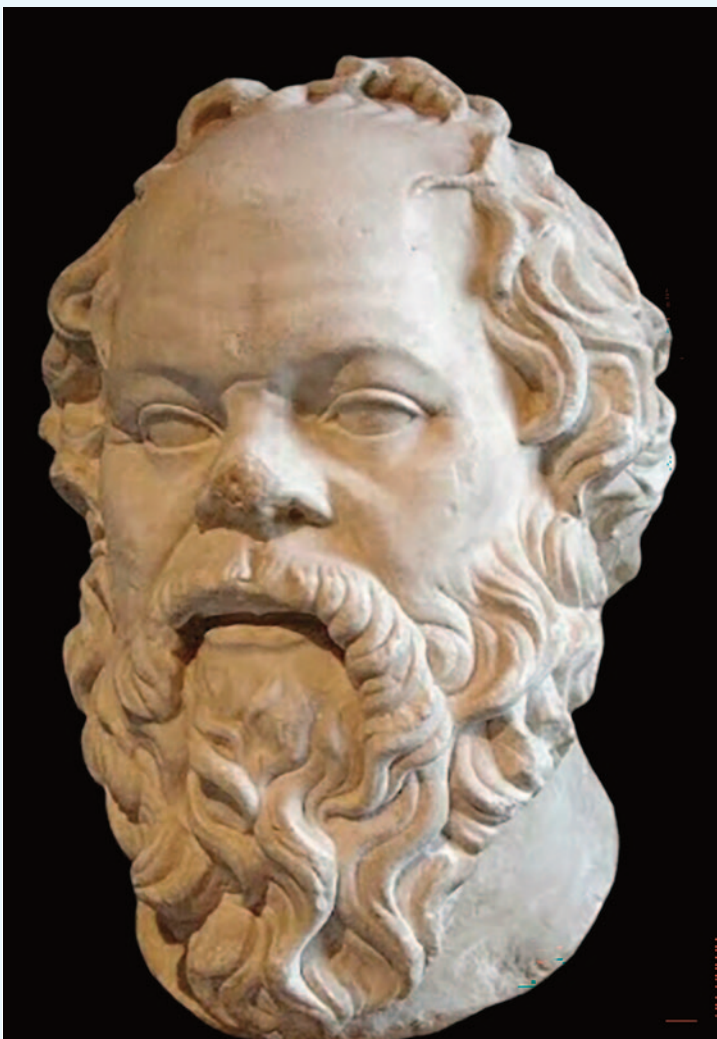
이 하나님과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 남편도 살고, 내 아내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가족과 친지들도 사는 것이다. 주변의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도 살아나고,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의 나의 할 일과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늘 앞으로 가지만, 모든 ‘앞으로 감’이 순방향은 아니다. 때로는 멈추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신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너를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너를 소모시키고 있느냐?” 하고 지금도 내게 묻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의 삶은 성과가 아니라 ‘정렬(alignment)’이다. 오늘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가.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결단의 오늘이길 시간이길 기도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철학과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다. 성적표상 학점이라면 크게 나쁘지 않다. 요사이 학점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말이다. 그런데 학점에서 최고 점수는 A+이다. 교수님은 말을 덧붙였다. AI는 정답은 잘 맞춘다. 하지만 문제를 통합하고 성찰하며 독창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므로 AI에게 A+는 줄수 없다. 내 고개가 끄떡였다.

의예과나 공과대학만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었다. 한편 비인기학과엔 반드시 철학과가 포함되는 건 반세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왕년에 썰렁한 개그도 있었다. 철학과를 졸업하면 육교위에서 좌판을 벌린다고 했다. 돛자리를 펴고 손금을 포함한 사주관상을 봐준다고 했던 거다. 세상이 바뀌었던가.

그런 철학과의 인기가 높아가는 모양이다. 한때 ‘불쌍하고 불행한 영혼’들이 선택하는 그 전공이 말이다. 고고인류학이나 미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비인기 학문을 말한다.

시와 철학이 만나는 지점이 궁금했다. AI에게 물었다. 이육사가 먼저 났다. 그의 시 광야曠野가 나왔는데 저항과 미래에 대한 철학적인 의지라 했다.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국광복과 민족의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 필연성이라 했던 거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이육사, 광야중에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성가가 높다고 한다. 관람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전한다. 박물관엔 STEM 보다는 미학과 고고학이 철학과 더불어 만나는 곳이다. 덕분에 비인기학문들도 더욱 창대했으면 한다. 고고학이나 미학이나 철학은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키워 주기 때문일 거라 우긴다.

매화향기가 아득하게 아름다운 시절이다. 눈이라도 우물이 내린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노래중의 노래이다 (아가 1:1, 현대인 성경)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을 말한다. STEM은 마냥 좋기라고만 생각했으니 내생각이 한참 뒤졌다. 그런데

STEM이 좋기라면 철학은 학문의 뿌리인가?
과학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수의 변遷이다. AI는 똑똑한 학생인데, 학점을 주자면 A나 B+란

보스톤코리아 신문,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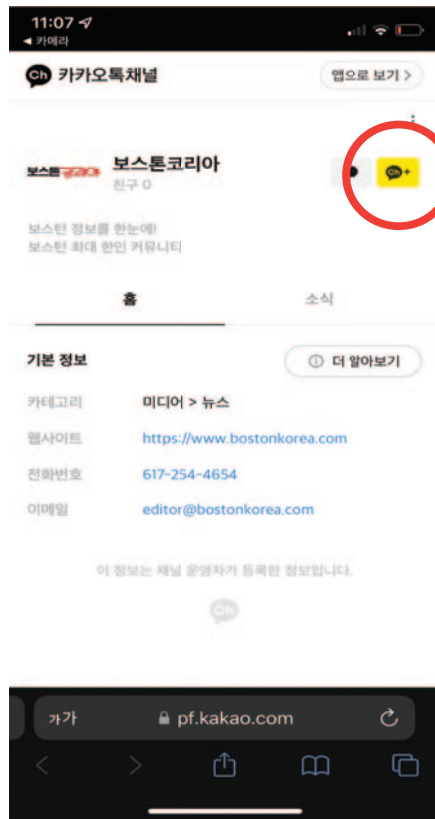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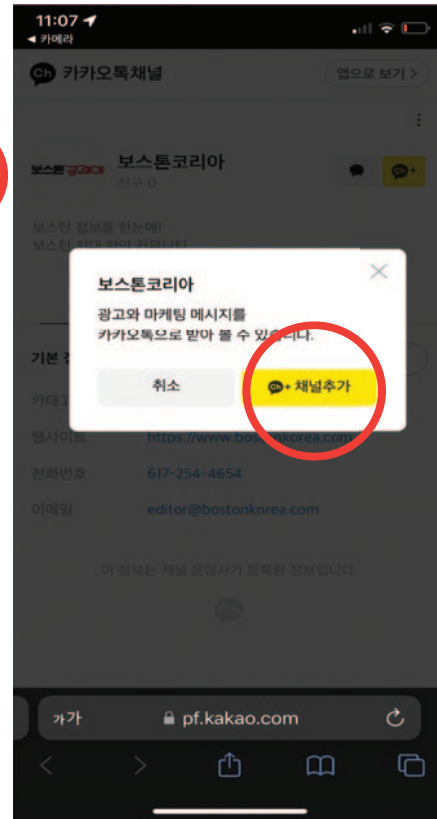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만, 평생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 사회적 인식부터 변화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질병인 비만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비만당뇨수술센터장 김 용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외형상의 문제가 아닌, 고혈압·당뇨병·심혈관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비만율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만 유병률은 2022년 기준 38.4%로, 성인 3명 중 1명 꼴로 집계된다.

비만은 체중 증가 자체보다 그로 인한 대사 이상과 합병증이 더 큰 문제다. 고도 비만 환자는 당뇨병, 관절염, 요통, 지방간,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며, 심할 경우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고도 비만 환자의 당뇨병 발병 위험은 일반인보다 4~5배, 고혈압 위험은 3배 정도 높은 것

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의 비만 치료 주사제가 등장해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주사치료제는 비교적 간편한 방식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비만 치료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투약 중단 후 요요현상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반복되는 체중 증가는 오히려 대사 상태를 악화시켜 체중 감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약물 장기 투여에 따른 비용 부담과 위장관 부작용 역시 치료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주사치료제는 체중 감량의 일시적 방편일 뿐, 근본적인 비만 치료법이 될 수 없다는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비만대사수술은 체중 감량은 물론 제 2형 당뇨병 등 대사질환 개선 효과까지 입증된 치료법으로 약물치료 한계를 해결

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미국당뇨병 학회는 비만대사수술을 제 2형 당뇨병 표준 치료 지침에 포함시켰고, 대한비만대사 학회 역시 고도비만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수술을 권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술법으로는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소매절제술' 과 음식물 이동 경로를 변경하는 '위우회술' 이 있다. 위소매절제술은 위의 약 70~80%를 절제해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는 수술로, 국내 비만대사수술의 약 80%를 차지한다. 위우회술은 음식이 지나가는 경로를 바꿔 섭취량과 흡수를 동시에 줄이는 방식이다. 비만대사수술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몸의 대사 구조 자체를 바꾸는 치료와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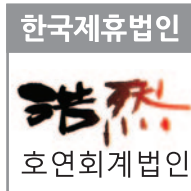
향후 비만 치료는 수술과 약물, 생활습관 개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치료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만도 의료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병이라는 사

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비만을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비만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각종 합병증의 위험이 처해있는 비만환자의 건강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비만, 평생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 사회적 인식부터 변화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ee@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UNG KWAN JANG

새해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전달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싸는 것을 넘어 좋은 기운과
보자기 포장

행사일정: 01.23 ~ 02.18



‘무료 배송 가능’
*\$300 이상 내방 구매고객 한정



프리미엄 선물
(천녹류 4종, 달임액 3종, 톤류 2종)

Buy 1 Get 10% OFF
Buy 2 Get 20% OFF

제품 구매시, 보자기 포장 제공



우리아이 CARE
(아이패스, 홍이장군)

Buy 1 Get 10 Packs
Buy 2 Get 20 Packs
Buy 3 Get 1 Box (30 Packs)



혈당, 근력 관리
(GLPro Double Cut)

GLPro Double Cut 구매시,
GLPro AKKER MUSCLE 증정

보스톤정관장 벨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 929.600.4880

1월 25일 - 1월 3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 운수: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변화가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 금전: 매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얻는 것도 많아지니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 애정: 생각지도 않은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자리는 마다하지 말고 꼭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7, 30일 길일, 29, 31일 주의.



소띠 |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 운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간 거리만큼 돌아 나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남의 말만 듣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사들이면 금방 후회하게 되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겉으로는 관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니니 표정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5, 26일 길일, 27, 30일 주의.



범띠 | 감사하는 마음으로

● 운수: 자신이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두루두루 살피고 베푸는 여유도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성의 표시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아끼고 아끼던 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합쳐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9, 30일 길일, 25, 31일 주의.



토끼띠 |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 운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게 보낼 것입니다. ● 금전: 원하던 것을 원하는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유리한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집안에 온기가 돋니다. 함께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5, 28일 길일, 26, 31일 주의.



용띠 |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 운수: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한 번 살펴보세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 금전: 이래저래 나가야 할 것이 많으니 돈 문제로 잔심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 애정: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6, 28일 길일, 25, 27일 주의.



범띠 | 밝고 환하게 웃는

● 운수: 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 금전: 나가는 것이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 애정: 기대해도 될 만한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위를 잘 살펴보면 운명의 짝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7, 30일 길일, 25, 28일 주의.



말띠 | 훌훌 털어버려야

● 운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상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조금만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 금전: 돈에 연연하다가는 도리어 병이 되니 훌훌 털어버리세요. ● 애정: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나 진심으로 한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8, 30일 길일, 26, 29일 주의.



양띠 |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 운수: 말을 전하려면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잘못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원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 애정: 누구든지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03, 91, 79, 67, 55, 43년생은 25, 29일 길일, 26, 27일 주의.



원숭이띠 | 냉철하게 살펴보고

● 운수: 귀가 얇아져서 이 치료 저 치료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상태가 악화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 금전: 현금 흐름을 잘 살펴봐도록 하세요. 자신의 자금 상태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양보하세요. 04, 92, 80, 68, 56, 44년생은 26,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닭띠 |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 운수: 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넓디넓은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금전: 아직은 안심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된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에게 어떤 영양제보다 더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9일 주의.



개띠 | 미리 대비를 해두는

● 운수: 자신만 부족하고 자신만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이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지연되기 쉽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8,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돼지띠 | 크게 기지개를 펴고

● 운수: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잔뜩 움츠렸던 상태에서 벗어나입니다. 크게 기지개를 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전: 자산을 늘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언젠가 뿌려놓았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29일 길일, 28, 3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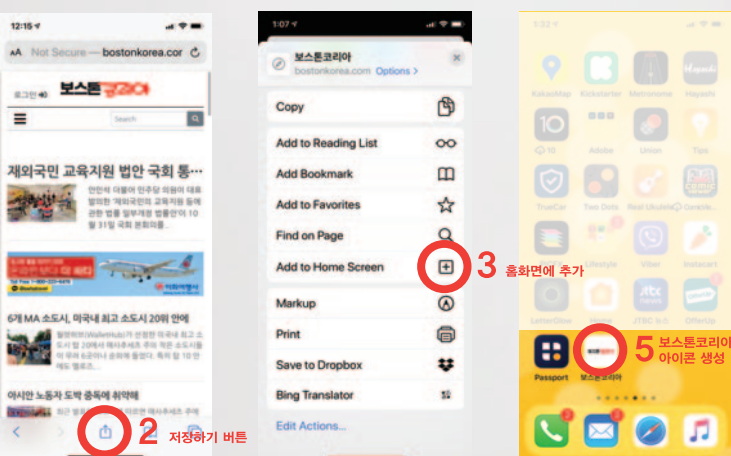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